



世界穀物備蓄 9% 줄어

—총 1억 1천만톤. 小麥 3% 감소—

6월말 현재 世界主要穀物備蓄量은 1억 1천 8백 10만톤으로서 1년전보다 9%가 감소되었다고 英聯邦事務局이 8월 16일 밝혔다.

英聯邦事務局報告書에 따른 小麥·옥수수·보리·燕麥·호밀, 사탕수수 등 주요곡물의 비축현황은 다음과 같다.

▲ 小麥=74년 6월말 현재 美國, 캐나다, 濠洲 등 5大 輸出國의 비축량은 3천 2백만톤

으로 73년 6월보다 3%가 감소됐다.

▲ 보리=6월말현재 5大 輸出國의 비축량은 1천 70만톤으로 1년전보다 10%떨어졌다.

▲ 옥수수=美國, 아르헨티나, 프랑스, 南 아프리카共和國 등 4大 輸出國의 6월말 현재 비축량은 5천 8백 20만톤이다.

▲ 燕麥=美,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 3大 輸出國의 비축량은 5백 40만톤으로 작년보다 34%나 감소됐다.

▲ 호밀=英, 西獨,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 4大 輸出國의 비축량은 1백 50만톤으로 근 33%가 줄어들었다.

▲ 사탕수수=주요수출국의 비축량은 1천 30만톤으로 작년보다 10%가 증가됐다.

伊·마카로니 危機에

—原料價이단 상승에 買占 戒쳐—

이탈리아에는 物價高, 失業者, 이에 대한 抗議과업, 右翼의 테러 등 악순환이 예측되는 가운데 마카로니 危機(별칭 스파게티 戰爭)가 밀어닥쳤다. 이탈리아 전체의 小賣店이나 슈퍼마켓등에서 마카로니, 스파게티등의 主食이 자취를 감춘 것. 원인은 언제나처럼 가격인상을 기다리는 買占實惜.

이 危機는 8月 下旬 原料粉製造業界가 지역 별로 잇달아 50%나 가격 상승을 발표한데서 비롯된다.

消費者團體의 억센 항의에 겁먹은 데미터商 工長官은 서둘러 未引上地區의 價格凍結을 命令하므로써 지역에 따라 가격차가 생기는 混亂을 招來하는 현상이 빚어졌다.

凍結地域業者들은 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 物品을 창고에 넣어 두었고, 가격인상 발표를

끝낸 메이커도 政府가 가격인하 판매의 행정 조치를 단행할 것을 경계, 이들도 出荷정지. 小賣業者나主婦들의 買占賣惜 행위가 暗去來時勢를 부채질하여 3배이상의 가격으로도 여간해서 못산다는 事態가 되었다.

이미 7~8월에 밀크·雪糖이 50%, 肉類 18%, 麥酒·통조림類·비누등이 12~15%씩 上昇했고, 최근 1년간 物價上昇率은 19.3%로 EC(歐洲共同體)중 最高値를 보이고 있다.

魚類蛋白質 이용등 연구

—日本大洋漁業·아지노모도社技術 제휴—

日本の 大洋漁業과 아지노모도社는魚類蛋白質資源의 有效이용을 目標로 연구 개발분야에서 제휴할 것에 합의하고 年內에라도 兩社 기술관계자의 연구위원회를 설립, 연구활동에 나설 방침을 결정했다.

현재로는 ① 大洋측이 버리고 있는 高蛋白質廢水에서 細菌아등을 사용. 蛋白質을 抽出하여 食品이나 飼料용 원료로 活用한다. ② 아지노모도社가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를 이용 魚類蛋白質을 원료로하는 신제품 개발을 계획하고 있어 加工度가 낮은 魚類蛋白質에 부가 가치를 붙여 판매할것을 노리고 있다. 大豆 등 植物蛋白質에 비해 응용면에서 뒤진 魚類蛋白質 이용 기술의 연구는 兩社의 제휴를 계기로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兩社의 제휴는 기업규모에 비해 연구부문이 약하다는 大洋이 動物蛋白質의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아지노모도社의 기술진의 協력을 얻어,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高蛋白質廢水에서 蛋白質資源을 회수 魚肉소시지 등을 대신할 새 魚類蛋白質 이용 제품을 개발하려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多收穫 옥수수 開發

멕시코 農業相은 多收穫을 올릴 수 있는 新種 옥수수를 개발했다고 발표하였다.

슈퍼스몰이라고 불리는 키가 작은 이 新種 옥수수는 북부 멕시코에서 개발되었는데 20년 전 처음으로 多收穫種 재배를 시도 성공함으로써 소위 綠色革命을 이룩하게 되었다고 농업성 大臣이 말했다.

이 新種 옥수수로 1ha當 19톤의 옥수수가 수확하였는데 이는 在來種의 평균 수확량 5톤에 比하면 약 4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 옥수수는 키가 작고 잎사귀가 곧아서 同一한 면적에 在來種보다 3배나 더 많이 심을 수 있으며 알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설탕 공동 需給대책 모색

—EC 域內 需給사정 惡化대비—

EC는 세계 選糖수급사정이 앞으로 점차 더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국제시세도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전망, 域內수급 안정을 위한 공동 選糖정책을 입안, 실시할 방침이다.

EC의 年間選糖 수요량은 역외수출 25만톤 내외를 포함, 총 1천 60만톤에 달하며 해마다 20만톤 가량씩 증가하고 있다. 이에따라 EC는 내년 7월 1일을 기해 생산자에 대한 各國의 독자적인 지원정책을 철폐하고, 생산·교역 및 가격정책을 일괄 EC에 흡수, 공동으로 수립·집행할 目標로 EC공동選糖정책을 입안 키로 했다.